

C-13.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 환자에서의 골이식술 및 치조제 증대술

강휴택, 김옥수, 김영준,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는 기존의 ‘localized juvenile periodontitis’를 대체한 새 용어로 (AAP, 1999) 전치 및 제 1대구치의 급속한 골파괴와 부착상실을 보이며 가족력을 갖는 질환이다. 급속한 치주조직의 파괴 이후 진행 속도는 느려지는(self-arresting) 양상을 보인다.(M.Tonetti, 1999)

치주조직의 파괴로 인해 부착이 상실된 infrabony defect에 대한 골이식술은 상실된 치조골의 재건 및 부착의 획득, 치주낭 감소 등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태조절이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본 증례의 환자(F,36)는 상악 전치부 및 제 1대구치의 급속한 골파괴 및 치주조직의 상실을 보이는 환자로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로 진단되었다. 약물치료를 동반한 비외과적처치를 시행하여 질환의 활성을 억제시킨 후 외과적 재생술을 시도하였다.

치주조직 재생술에 사용되는 골이식 재료중 자가골은 골유도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식재이나, 얻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흡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본 증례에서는 이종골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거된 상악 전치부에 보이는 치조제 결손부는 폭과 높이가 함께 소실된 Seibert 분류 class III로서 혈소관 농축 혈장과 자가골을 혼합한 골응괴를 이식하고, modified Roll's technique (D.Scharf,1992)을 이용하여 경조직 및 연조직의 증대를 얻고자 하였다. 추후 ovate pontic을 이용 치간유두의 재생 및 인접조직과의 조화를 이루려한다.

연구결과 및 결론

약물치료를 동반한 치주치로 치주질환 원인균 억제 및 질환의 활성을 줄인 후 외과적 재생술로 infrabony defect 및 치조제 결손부를 처치하여 적절한 구강위생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추후 주기적 내원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